

번호 20-7

제 목	국문 영문	정신과 재원기간별 서비스 제공량 분석		
저 자 및 소 속	국문	김윤, 홍진표*, 김은경, 황대기, 서창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영문	Yoon Kim, Jin-Pyo Hong*, Eun-Kyung Kim, Dae-Ki Hwang, Chang-Jin Suh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Ulsan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김윤	
발표 형식	구 연	발표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O ), 연구 중 (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목적

정신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이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은 가장 중요하고도 거의 유일한 정책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정신보건체계의 개혁은 정신보건재정 및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혁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의료보호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원기간별 진료비 차등제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입원기간별 정신의료서비스 제공량을 파악함으로써 재원기간별 진료비 차등제의 진료비 수준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째, 재원기간별 서비스 유형별 제공량 및 진료비를 밝힌다. 둘째, 정신의료기관 유형이 재원기간별 정신의료서비스 제공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셋째, 정신질환자의 중증도가 재원기간별 정신의료서비스 제공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조사대상 기관은 위하여 종합병원급 3개 병원과 정신병원급 3개 병원으로 총 6개 기관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병원에서 병동별, 재원기간별 및 의료보장 유형별로 약 15-20명 씩 조사대상을 무작위 층화표본추출하였다. 환자에게 1주일 동안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환자별 의사면담 등을 포함한 정신치료서비스, 간호서비스, 투약서비스의 내용을 동시적으로 조사하였다. 투약료를 제외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RBRVS)를 이용하여 진료비로 환산하였다.

Resident Assessment Instrument-Mental Health(RAI-MH)를 이용하여 정신질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AI-MH 중 정신질환자의 서비스 요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정신병리, 자해 및 타해, 행동장애, 강박처치, 자기관리 항목을 조사하였다. 정신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를 조사자로 활용하였다.

### 3. 연구결과

의료보험 환자에서 1일당 평균 치료서비스 제공량은 재원기간 60일 이내의 경우 17,444원이었으며, 재원기간 60-180일의 경우 60일 이내의 59%에 해당하는 10,261원, 재원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60일 이내의 31%에 해당하는 6,056원이었다. 의료보호 환자에서 1일당 평균 치료서비스 제공량은 재원기간 60일 이내의 경우 7,087원이었으며, 재원기간 60-180일의 경우 60일 이내의 76%에 해당하는 5,402원, 재원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60일 이내의 71%에 해당하는 5,031원이었다.

의료보호 환자에서 1일당 평균 치료서비스 제공량은 재원기간 60일 이내인 경우 의료보험 환자의 40.6%, 재원기간 60-180일의 경우 52.6%에 불과하였으며, 재원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83.1%를 차지하였다. 의료보험 환자에서 정신병원의 1일당 평균 치료서비스 제공량은 재원기간 60일 이내의 경우 9,606원으로 종합병원의 35.0%, 재원기간 60-180일의 경우 종합병원의 40.8%에 불과하였다.

서비스 내용별로는 면담료, 정신요법료, 검사 및 처치료, 투약료에서 재원기간이 길어질수록 서비스제공량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단지 재원기간 1년 이상에서 면담료와 정신요법료가 약간 늘어났다. 검사 및 처치료는 재원기간 30일 전보다 후에 11% 수준으로 서비스 제공량이 가장 급격히 감소하였다.

### 4. 고찰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서비스 제공량은 재원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정신병원의 치료서비스 제공량은 종합병원에 비하여 크게 적었으며, 재원기간 60일 이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치료서비스 제공량도 의료보험 환자에 비하여 크게 적었으며, 재원기간 60일 이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병원 입원환자 특히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량이 이들의 서비스 요구도에 크게 미치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병원 의료보호 입원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서비스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원기간별 진료비 차등제와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질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보호 정신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원기간별 진료비 차등제를 도입함으로써 입원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와 장기입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